샴페인, '레어'를 선택할 자유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51

"자연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지 않는다. 샴페인 레어도 그렇다."

빈티지 샴페인의 특별함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

와인에서 빈티지(vintage)란 포도를 수확한 해를 말한다. 보통 와인이라면 매년 빈티지를 달고 나오지만 샴페인은 논(non) 빈티지가 보통이다. 빈티지 샴페인은 작황이 뛰어난 해에만 그해 포도로 만든다. '레어'는 빈티지 샴페인만 내는 하우스다.

샴페인 레어의 글로벌 디렉터 모드 라뱅(Maud Rabin·사진)은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모든 빈티지는 자연에서 시작한다"며 "해마다 같은 샴페인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스타일에 충실하면서 특별한 빈티지 각각이 지닌 비범한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레어 밀레짐(Rare Millesime) 2015'를 선보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2015 빈티지가 시장에 출시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다른 나라는 내년 봄에나 나온다.



레어 밀레짐 2015 빈티지. /아영FBC

레어는 설립자인 플로랑 루이 하이직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만난 당시 '왕비에게 걸맞은 퀴베'를 만들겠다고 한 데서 출발했다. 첫 빈티지는 1976년이다. 파이퍼 하이직의 상급 라인으로 있다가 2018년에는 독립 브랜드가 됐다.

레어를 관통하는 두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자유'와 '시간'이다.

먼저 샴페인 하우스로서 해당 빈티지를 만들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샴페인을 말하는데 불쑥 자유가 나온 게 바로 납득이 된다.



샴페인 레어의 글로벌 디렉터 모드 라뱅이 이달 한국을 방문에 레어의 2015 빈티지 출시를 알렸다. /아영FBC

라뱅 디렉터는 "우리는 양이 아니라 품질을 따른다"며 "수확의 품질, 신선함과 숙성도의 균형, 향의 복합성, 그리고 뛰어난 숙성 잠재력 등이 선택의 핵심 기준이지만 기술적 탁월함을 넘어 레어 샴페인이 될 만한 개성과 깊이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50년 동안 레어가 낸 빈티지는 2015년까지 단 15번에 그친다.

레어는 9개~11개 마을의 포도로 샤르도네 70%, 피노 누아 30%를 블렌딩해 만든다. 특히 좋다는 샴페인이 보통 코트 데 블랑의 샤르도네를 쓰는 것과 달리 레어는 몽타뉴 드 랭스에서 가져온다.

그는 "피노누아의 왕국이라 불리는 마을에서 자란 샤르도네로 양조한다"며 "샤르도네가 지배적인 마을과는 토양도, 포도나무가 자라는 방식도 달라 레어만의 신선함과 미네랄리티가 여기서 나온다"고 밝혔다.

2015 다음으로 나올 빈티지는 알 수 없지만 제외된 빈티지 하나는 확실하다. 2026년이다. 그는 "올해는 앞으로 20년, 40년을 버틸 좋은 과일의 풍미를 얻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자유는 출시 시기에도 통한다. 레어는 2012보다 2013 빈티지를 먼저 내놓았다. 2015 빈티지 역시 2025년에 낼 수도 있었지만 1년을 더 기다렸다.

라뱅 디렉터는 "시간은 각 빈티지가 복합성과 깊이, 개성을 온전히 펼치게 해 준다"며 "와인이 스스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셀러에 두고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레어는 빈티지마다 특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름을 붙인다. 2012 빈티지가 '환희의 송가(Ode to Joy)'였다면 2015 빈티지는 '봄의 송가'다.

2012는 서늘한 해에 태어났다. 그는 "아주 신선한 빈티지"라며 망고, 자스민, 오렌지 블라썸, 라임 향을 꼽았다.

2015 빈티지는 '프리마 베라(Prima Vera)'다. 라틴어로 봄이라는 뜻이다. 2015는 1년 내내 더운 해였다. 라뱅 디렉터는 "햇살을 듬뿍 받아 포도의 당도가 높았던 햇살 가득한 빈티지"라고 했다. 신선한 키위와 자스민 같은 꽃향기, 민트와 허브티 향에 살짝 익은 파인애플과 꿀의 뉘앙스가 더해진다.

샴페인 레어에 대한 얘기는 자유로 시작해 자유로 끝난다. 빈티지를 만들지 않을 자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자유. 그리고 우리에겐 레어를 선택할 자유다. 겨울의 문턱에서 마시는 봄의 송가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CGV, SCREEN X 특별관 2종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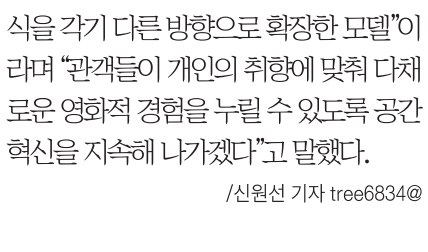
여의도·씨네드쉐프 용산점서 개관
고화질 스크린, 프리미엄 리클라이너

CJ CGV가 다면상영특별관 SCREENX의 기술과 관람 환경을 차별화한 신규 특별관 2종을 선보인다. 고화질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상영관과 프리미엄 리클라이너 좌석을 갖춘 상영관을 각각 도입해 특별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CGV는 오는 12월 7일 서울 여의도점에 'SCREENX LED관'을, 씨네드쉐프 용산점에 'SCREENX LUX관'을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

여의도점에 들어서는 SCREENX LED관은 국내 최초로 3면 파노라마 스크린에 자체발광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상영관이다. 기존 영사 방식과 달리 LED가 직접 빛을 내는 구조로, 깊은 명암비와 선명한 색감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좌우 스크린에는 곡면 설계를 적용해 화면이 관객의 시야를 자연스럽게 감싸도록 했으며, 16채널 이머시브 입체 음향 시스템도 구축했다.

씨네드쉐프 용산점의 SCREENX LUX관은 관람 편의성을 강화한 공간이다. 270도 파노라마 스크린에 북유럽 프리미엄 리클라이너 브랜드 스트레스리스의 시네마 전용 좌석을 결합했다. 편안한 좌석에서 정면과 좌우로 확장되는 화면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SCREENX LED. /CJ CG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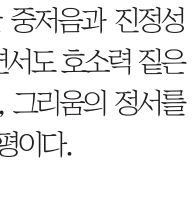
CGV는 개관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여의도점은 사전 시사회 응모를 통해 선정된 관객에게 12월 7일 '어벤져스: 엔드게임 앙코르'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씨네드쉐프 용산점은 아이파크몰 앱 이벤트를 통해 추첨으로 50명에게 전용 관람권과 팝콘 쿠폰을 증정한다. 오픈 기념 회차 예매 고객에게는 별도 굿즈도 제공한다.

고재수 CJ CGV 시네마사업본부장은 "SCREENX LED와 SCREENX LUX는 SCREENX 고유의 차별화된 상영 방식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확장한 모델"이라며 "관객들이 개인의 취향에 맞춰 다채로운 영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노래교실 강사들이 뽑은 이달의 가수 '배금성'

중장년 남성 회원들에게 '인기'



한국가요강사협회 소속 노래교실 강사들이 선정한 11월 '이달의 가수'에 트로트 가수 배금성(사진)이 이름을 올렸다.

배금성의 음악적 뿌리는 남다르다. 한국 가요사의 전설로 불리는 故 백년설('나그네 설움', '번지없는 주막' 등)의 외손자이자 합창단원으로 활동한 어머니의 음악적 감성을 물려받았다.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키운 계기는 군 복무 시절이다. 취사병으로 근무하며 틈틈이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는 부대 노래자랑에서 1등을 차지했고, 당시 무대를 지켜본 사단장의 지시로 군 문선대에 발탁됐다. 장병들 앞에서 노래하며 느낀 벅찬 박수와 감동은 그를 평생 노래의 길로 이끈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이후 2002년 작곡가 김병걸을 만나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거치며 탄탄한 실력을 다졌다.

배금성의 음악에는 오랜 무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중저음과 진정성이 배어 있다. 편안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사랑과 이별, 그리움의 정서를 섬세하게 풀어낸다는 평이다.

2022년 발표한 '사랑이 비를 맞아요'는 방송과 온라인 커버 영상을 통해 대표적인 역주행 곡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연정', '사랑이 두 개', '낮엔 비 밤엔 당신' 등 다수의 곡이 전국 노래교실 애창곡으로 불리며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중장년 남성 회원들의 지지가 두터워 남녀 모두가 함께 즐기고 따라 부르는 가수로 통한다.

178cm의 훤칠한 체격과 단정한 무대 매너, 건강한 이미지 역시 그의 강점이다. 한·몽골 친선마라톤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한 그는 좋은 노래를 오래 들려주기 위해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일 역시 팬들을 향한 노래꾼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신원선 기자

〈11월 노래교실 애창곡〉 /한국가요강사협회

순위	곡명	가수
1	눈뜨고 있는 한	강문경
2	역마차 싸롱	윤수현
3	신년만	양지은
4	나비야	전유진
5	옛날 애인	전부성
6	다시는	나훈아
7	아이 좋아	린
8	딱 한번의 실수	임현정
9	바람의 소원	채희
10	나는 반딧불	황가람
11	이정표	장윤정
12	고창에서 왔어요	김현
13	하늘에	장윤정
14	나 이러는 동안	조항조
15	순정	강문경
16	빈 술잔	정의송
17	안양역 첫차	박혜신
18	가시 여인아	태진아
19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솔지
20	인간 시장	진성
21	목포행 완행열차	장윤정
22	금수저	김용빈
23	고맙소	조항조
24	인생열차	나태주
25	찐이야	영탁
26	참회	최진희
27	내가 왔어요	우설민
28	연정	배금성
29	미운사랑	진미령
30	연모	박우철

메트로 한줄뉴스



▲"중국 AI칩 출하량 2030년 1000만개 돌파 전망…작년 6배" /사진 뉴시스

▲美, '호남 반도체' 정조준하며 "협의 불만족시 관세 25%" 압박

▲우크라군 숨통 트일까…美, 우크라에 F-16 정비물자 판매 승인

▲폴란드, 우크라 접경 비행금지구역 설정…러 영공 침범 대응

▲젠슨 황 돌아왔지만…美 여야 지도부, 中칩 규제 강화 한목소리

▲美 국방장관 내달 방일…주일미군 분담금·방위비 증액 논의